

# 도, 아헤스와 600억원대 투자협약 맺어

### 도-아헤스-인도기업, 수소시장 확대 협약... 완주테크노밸리 내 수전해 장비 생산설비 구축 2028년까지 603억 투입해 공장 설립 등 단계적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와 함께 수소전문기업인 ㈜아헤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최충식 완주테크노밸리 대표, 이종희 ㈜아헤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아헤스는 그린수소 선도기업으로 차별화된 친환경 수전해 설비를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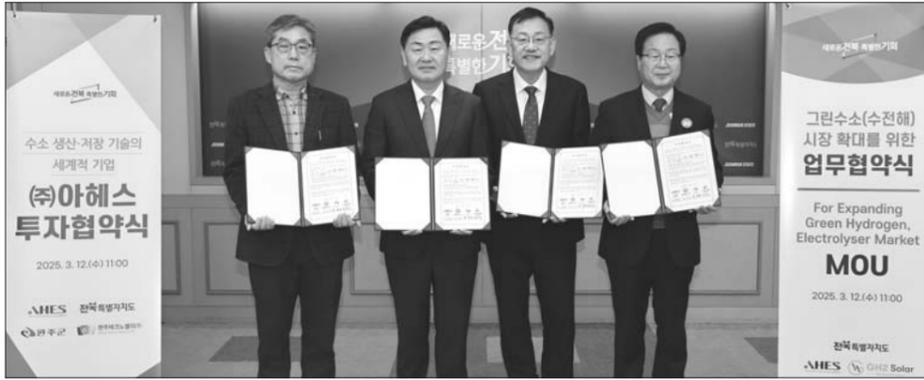
산하는 기업이다. 수전해 설비는 대부분 수입산으로, 고가의 귀금속인 백금(Pt), 이리듐(Ir) 등을 촉매로 사용해 가격이 비싸고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데 비해 ㈜아헤스는 값싸고 내구성이 강한 비귀금속 신소재 촉매를 개발·적용한 수전해 장치를 특허 출원한 상태이다. 이번 협약으로 ㈜아헤스는 앞으로

3년간 공장 설립과 생산설비 구축에 총 603억원을 투입, 국내·외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25년말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해 인도 수출 계약 물량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생산 부분의 신규고용도 향후 5년간 100명 이상 채용계획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인도 그린수소 생산 기업인

GH2 Solar Ltd.사와 ㈜아헤스, 전북특별자치도 간의 업무협약도 이뤄졌다.

인도 에너지공사로부터 525MW(약 3억kw) 규모 수전해 제조 입찰을 따낸 이 'GH2 Solar' 기업은 아헤스가 제조한 수전해 스택을 사용해 인도의 그린수소 생산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아헤스, GH2 Solar와 함께 오는 3월 24일 영국 Rhizome Energy사는 인도에 합작 수전해 회사를 설립할 예정으로 그린수소 시장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수소전문기업인 ㈜아헤스 투자 협약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종희 ㈜아헤스 대표, 유희태 완주군수, 최충식 완주테크노밸리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투자 협약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구축 시급

### 전북연구원, "글로벌 물류 중심지 도약 위한 필수 전략" 강조 관문형 복합물류 최적화·비용 절감·글로벌 기업 유치 기대

새만금이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2일 이슈브리핑 '새만금 트라이포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관문형 복합물류의 새 지평을 열자'를 통해 대한민국 서해 중부권의 관문형 복합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이슈브리핑은 2026년부터 새만금 신항과 국제공항 등 물류 인프라가 순차적으로 개항함에 따라 복합물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한다. 연구에 따르면 항만, 공항, 철도 인프라가 조성된다고 해서 복합물류 서비스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 디지털 물류 관리, 운

영 표준화, 이해관계자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30여 개의 수출입 물류 플랫폼이 개별 운영되고 있는데 중복 업무와 정보 활용의 비효율성이 있어, 통합 플랫폼을 통한 물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트라이포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공유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해외 물류 기업과의 협업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수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물류 시스템 구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물류 시스템을 연계해 탄소 배출 절감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또한, 과거 유사 사례에서 경험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를 국가 전략 과제로 추진해야 하며, 정부·지자체·기업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물류 플랫폼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도시로 전북자치도가 확정될 경우, 올림픽 개최에 따른 여객과 물류의 효율적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며,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연구책임은 맡은 나경호 책임연구위원은 "새만금 트라이포트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은 대한민국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북자치도가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정부,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한다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물류 표준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제1회 응급의료위원회 개최

### 도내 응급의료체계 개선 위한 중점 추진과제 심의 소아응급의료센터 확대·달빛어린이병원 추가지정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위원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의료 자원조사,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대표, 응급의료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관련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소아응급환자가 야간 및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소아응급환자가 야간 및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예수병원, 10억 원)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실(원광대병원, 5억 원)을 운영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5개소→6개소)하며 △서남권 소아진료센터를 개소(2025년 4월, 정읍아산병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신설한 응급의료지원단을 본격 운영해 지역별 응급의료 자원조사, 이송체계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응급의료 이송지침을 보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장인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관은 "전북자치도는 응급의료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 모두가 적시에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응급의료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2025년 응급의료 시행계획(안)을 심의하는 한편,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5년 응급의료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장 이송 △병원 △응급의료 기반 △재난의료 대비·대응 등 4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총 12개 추진과제와 21개 성과지표를 포함한 정책을 수립했다. 올해 응급의료 분야에는 총 1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특히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재난 대응력 강화를 주

- 공 고 -

## 밀양박씨 이정공파 중중 총회

밀양박씨 이정공파 중중 총회를 알리고자 합니다.

#일시 : 2025년 3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 티하우스레몬(서울 강남터미널 2층) / 중식(시래마을)

- 안 건 -

- 결산 보고 ● 감사 보고
- 부동산매도건 ● 중중규약변경건
- 기타 안건

밀양박씨 이정공파 중중 회장 박철진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